

# 1930년대 인삼업의 성장과 삼포민의 활동

## -특별경작구역 이외 지역을 중심으로-

### The Growth of Ginseng Industry and the Activities of Ginseng Cultivators in the 1930s: Focusing on Non-Government-Contract Cultivation Areas

양정필\*

Jeongpil Yang\*

#### 초 록

##### 주제어

- 인삼
- 1930년대
- 특별경작구역 외 지역
- 인삼업의 성장
- 삼포민의 활동

이 논문에서는 1930년대 인삼 특별경작구역이 아닌 지역의 인삼업 변동을 살펴 보았다. 1930년대 인삼업의 큰 특징으로 삼포 면적의 급격한 증가를 꼽을 수 있다. 1929년 64만2천여 평, 1930년과 1931년 76만여 평이었던 삼포 면적은 1938년에 133만여 평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이 시기에 특별경작구역 외의 인삼경작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1930년대 초반까지 특별경작구역 내 삼포 면적과 특별경작구역 외 삼포 면적 비율은 약 70 대 30 수준이었다. 그런데 1930년대 후반이 되면 그 비율이 53대 47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동의 이유는 특별경작구역 내의 경우 신설 삼포 면적이 줄어든 반면 특별경작구역 외에서는 꾸준히 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일제의 중국 침략 확대로 중국에서 홍삼을 불매하면서 수출이 부진해지자 특별경작구역 내 삼포 면적을 축소하는 것이었다. 반면 특별경작구역 외에서는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삼포 면적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1930년대 특별경작구역 외 인삼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특별경작구역 외 인삼업의 성장을 이끈 지역은 전북이었다. 전북은 193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다른 도들을 압도하여서 특별경작구역 외 삼포 면적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었다. 전북에 이어서 경북과 강원도에서도 인삼경작이 활발하였다. 이외에도 경기도와 경남, 충북 등지에서도 비교적 인삼경작이 활발하였다. 반면 전남, 충남 등은 인삼경작이 이루어졌지만 활기를 띠지는 못했다.

\* 제주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Jeju National University

E-mail: yangjp@jejunu.ac.kr

1930년대 특별경작구역 외 인삼업의 성장을 이끈 것은 삼포민들의 노력과 당국의 지원이었다. 경북의 예천군, 경기의 강화군, 충북의 제천군의 사례를 보면, 세 지역 모두 인삼업이 일정하게 발전하자 삼포민들은 조합을 조직하였다. 조합은 인삼경작과 판매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활동하였다. 강화군의 경우 특별경작구역 편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제천군의 덕산삼업조합은 경작자금 조달이 관건이라고 보고 도 당국에 보조금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삼포민들의 활동에 대해 행정 당국도 지원하였다. 삼포민의 적극적인 활동과 행정 당국의 지원이 이 시기 인삼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 ABSTRACT

### Keywords

- Ginseng
- 1930s
- Government contract cultivation area of ginseng
- Growth of the ginseng industry
- Ginseng farmer activities

This article focuses on changes in the ginseng industry in the 1930s in areas other than the Government Contract Cultivation (GCC) zones. A major characteristic of the ginseng industry in the 1930s was the rapid increase in the area covered by ginseng gardens: the area was about 212 ha in 1929 and 252 ha in 1930 and 1931 but soared to around 441 ha in 1938. This occurred because the non-GCC areas increased significantly during this period. Until the early 1930s, the ratio of GCC to non-GCC areas was 70:30. By the late 1930s, however, the ratio had changed to 53:47. The reason for this change was that the area of the newly established ginseng gardens in the GCC zones had decreased, while that of the non-GCC ginseng gardens had steadily increased. Due to the Japanese invasion of China, China boycotted red ginseng, and exports were sluggish, so the GCC areas were reduced. On the other hand, the non-GCC ginseng gardens were not affected, and the area they covered steadily increased. As a result, in the 1930s, the ginseng industry outside of the GCC areas grew rapidly.

The region that led the growth of the ginseng industry outside of the GCC zone was Jeonbuk. By the late 1930s, Jeonbuk dominated the other provinces and accounted for more than 50% of the non-GCC farming zone. Gyeongbuk and Gangwon-do followed Jeonbuk in terms of ginseng cultivation areas. While Gyeonggi-do, Gyeongnam, and Chungbuk were also active in ginseng cultivation, Jeonnam and Chungnam were not active.

In the 1930s, the growth of the ginseng industry outside of the GCC zones was driven by the efforts of ginseng farmers and the support of local governments. An examination of Yecheon-gun in Gyeongbuk, Ganghwa-gun in Gyeonggi, and Jecheon-gun in Chungcheongbuk-do showed that ginseng farmers orga-

nized cooperatives as the ginseng industry steadily developed in these regions, and these cooperatives worked systematically to cultivate and sell ginseng. In the case of Ganghwa-gun, activities were carried out to incorporate the GCC zone. The Deoksan Ginseng Association in Jecheon-gun determined that financing for cultivation was key and requested subsidies from the provincial government. Administrative authorities also supported the activities of the ginseng farmers. The activities of the farmers and the support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together led to the growth of the ginseng industry during this period.

## I. 머리말

6·25 전쟁으로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까지 인삼 최대 산지는 개성 일대였다. 지금도 ‘고려인삼’이란 말이 익숙하듯이, 당시까지 인삼과 관련하여 개성지역이 갖는 존재감과 상징성은 특별하였다. 그렇지만 당시에도 인삼경작 지역이 개성 일대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개성지역 이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인삼을 경작하였다. 당시에도 금산과 풍기는 인삼 산지로 명성이 높았다. 현재 두 지역은 가장 대표적인 인삼 산지로 유명하고, 인삼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에게 더 친숙한 지역이다.

그런데 이들 지역의 인삼 역사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진하다. 『한국인삼사』와 같은 관계자들이 편찬한 책에서도 광복 이전 개성 이외 지역의 인삼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sup>1)</sup> 다만 최근에 개성 일대가 아닌 지역 중에서 금산 인삼에 관한 연구가 제출되었고, 또 대한제국 시기 인삼업을 다룬 논문도 발표되었다.<sup>2)</sup>

이 연구 성과들을 통해서 개성 이외 지역 인삼업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들 연구는 금산 지역과 대한제국 시기에 한정된 것이다. 일제강점기 개성 일대가 아닌 지역의 인삼업에 관한 연구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개성 이외 지역의 인삼업 상황을 1930년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고자 한다.<sup>3)</sup>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홍삼전매법을 시행하면서 ‘인삼특별경작구역’을 ‘지정’하였다. ‘인삼특별경작구역’ ‘지정’은 말 그대로 총독부가 특별히 지정한 인삼경작구역으로, 이곳에서만 총독부 전매국에서 제조할 홍삼 원료인 수삼을 재배할 수 있었다. 시기별로 특별경작구역에 변동이 있었다. 그렇지만 경기도의 개성군(1930년 이후에는 개성부와 개풍군으로 개편됨)과 장단군, 황해도 의 금천군, 평산군, 서흥군, 봉산군 등의 개성 일대가 일제강점기 내내 특별경작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곳들이다. 특별경작구역에서 인삼을 경작하려면 전매국의 경작 허가를 받아야 했다. 전매국은 좋은 홍삼 원료를 공급받기 위해서 특별경작구역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했다. 그 과정에서 전매국은 특별경작구역의 인삼경작 상황을 상세히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겼다. 그 결과 특별경작구역

<sup>1)</sup> 한국인삼사편찬위원회, 『한국인삼사 상·하』 (한국인삼경작조합연합회, 1980); 한국인삼사편찬위원회, 『한국인삼사 1·2』 (2002). 전자의 책에서는 1921-32년 구역 외 지역의 삼포 면적을 기재하고 있지만 그것을 분석하지는 않고 있다.

<sup>2)</sup> 양정필, 「한말-일제하 금산 인삼 연구」, 『한국사학보』 51 (고려사학회, 2013) p.199-226; 양정필, 「대한제국 시기 인삼업의 변화와 특징」, 『학림』 48 (연세사학연구회, 2021) p.415-452.

<sup>3)</sup> 1910-20년대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별도로 살펴보는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의 인삼업 관련 자료가 비교적 풍부하다.

일제강점기에 인삼 특별경작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인삼이 경작되었다. 이들 지역에서 재배된 인삼은 홍삼 원료로 공급되지 않고, 수삼이나 백삼 형태로 판매되었다. 그 허가권도 전매국이 아닌 해당 지역의 지방관인 군수 등이 갖고 있었다. 지방 관청은 관내 인삼업에 대해서 기초적인 조사는 하였다. 그 자료들은 전매국에서도 공유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 자료들이 일부 남아 있다.<sup>4)</sup> 그러다 1934년부터는 지방관이 갖고 있던 인삼경작 허가권이 전매국으로 이관되었다. 전매국은 개성 일대 이외 지역의 인삼업에 대해서는 특별경작구역에서처럼 조사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특별경작구역에 비해서 인삼업의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특별경작구역 외 지역의 인삼업 연구가 부진한 이유의 하나가 될 것이다.

자료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에 매우 많은 지역에서 인삼이 경작되었다. 그리고 그 면적도 상당한 규모였다. 따라서 인삼업의 실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인삼업의 변동을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은 시기별 삼포 면적의 변동을 살펴보는 것이다. 대체로 인삼업이 발전하는 시기에는 삼포 면적이 증가하고, 쇠퇴하는 시기에는 면적이 감소한다. 따라서 개성 이외 지역의 인삼업 변동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도별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관련 통계가 단편적이고 완전하지 않아서 면적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현재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상호 비교 검토를 통해서 1930년대 특별경작구역 이외 지역의 삼포 면적을 도출하려고 한다. 아울러 당시 인삼업에 종사하였던 삼포민들의 활동도 살펴봄으로써 당시 인삼업의 실상에 다가가 보려고 한다.

## II. 자료 검토와 삼포 면적 도출

1930년대 '인삼 특별경작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외'(아

래에서는 '구역 외'로 줄여서 사용함)의 인삼업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연도별 경작 면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921년부터 1932년까지는 군별 삼포 면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1933년 이후는 그러한 자료가 없는 것 같다. 1930년대 구역 외 지역의 삼포 면적에 대해서는 일관된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것이다. 다만 특정 연도의 삼포 면적을 알려주는 자료들이 몇 개가 남아 있어서, 이 자료들을 비교 검토하여 1930년대의 삼포 면적을 도출하려고 한다.

1930년대 구역 외 지역의 삼포 면적을 보여주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이 세 자료에 수록된 통계의 내용, 특징, 한계 등을 고찰하면서 1930년대 삼포 면적을 도출해 보자,

- ① 이마무라 도모[今村鞆]의 『인삼사』 제6권 부록에 수록된 '1921년 이후 도별 군별 구역 외 인삼경작 면적표',<sup>5)</sup>
- ② 1933년부터 1943년까지 조선총독부의 『통계연보』에 수록된 특용작물 항목의 인삼 면적 통계,<sup>6)</sup>
- ③ 육지수의 「조선인삼의 경제지리적 고찰(일본어)」에 수록된 1936년도의 '인삼 재배 지역의 분포'와 1938년의 도별 삼포 면적.<sup>7)</sup>

이마무라 도모의 『인삼사』 제6권 부록의 통계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921년부터 1932년까지 구역 외 인삼 경작 면적을 수록하고 있다.<sup>8)</sup> 1930년대를 살펴보는 이 글에서는 이 자료에서 193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1932년까지 구역 외 인삼 면적 통계를 얻을 수 있다. 이 자료

<sup>5)</sup> 今村鞆, 『人蔘史』 제6권 (조선총독부 전매국, 1939) p.618-623. 이 자료는 1921년부터 1932년까지 구역 외 지역이 군별 삼포 면적을 수록하고 있다. 그래서 1920년대 군별 인삼업 상황을 파악하는데 요긴하다. 1910년 이후 1928년까지의 구역 외의 인삼경작에 대한 고찰도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sup>6)</sup>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33-1943년 각 연도판.

<sup>7)</sup> 육지수, 「朝鮮人蔘の經濟地理的考察(未完)」, 『(朝鮮總督府)調査月報』 12(11) (1941) p.2-8.

<sup>8)</sup> 이 통계는 「한국 인삼사」(1980년) 상권에도 수록되어 있다.

<sup>4)</sup> 今村鞆, 『인삼사』 제6권 (조선총독부 전매국, 1939) p.618-623.

표 1. 1929년도 구역 외 인삼 경작 면적(단위: 평, 명)\*

	전북	경북	경남	강원	황해	평북	총계
면적(A)	124,300	115,650		81,200	182,500	800	644,600
인원(B)	1,011	334	315				2,709
A/B	123	346					238

\* 출처: 매일신보(1929. 10. 22.)

에는 당연히 1933년 이후의 통계는 실려 있지 않다. 따라서 1933년 이후의 통계는 다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 자료에는 또 다른 한계도 존재한다. 통계 표 내의 수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특히 1920년대 전반기의 경기도 통계에서 그러한 한계가 두드러진다. 구체적으로 보면 1927년까지는 통계표에 제시된 경기도 내의 군별 재배면적 합계와 같은 표에 기재된 경기도 전체의 삼포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다. 예컨대 1921년을 보면 경기도 전체의 면적은 236,446평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표에 제시된 경기도 내 군들의 삼포 면적을 합하면 25,587칸<sup>9)</sup>이 된다. 이 두 수치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 경기도 통계의 이러한 불일치는 1922년과 1923년까지 큰 차이를 보이다가 1924년에는 그 격차가 줄어든다. 그럼에도 그 차이는 작지 않다. 1925년에는 군별 삼포 면적은 제시되지 않고 도별 면적만 수록되어 있다. 1926-28년의 경기도 통계에서는 그 차이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1-3만 평 정도의 차이가 있다. 1929년부터는 이러한 격차가 사라지고, 경기도 내의 군별 면적 합계와 표 자체의 경기도 총 삼포 면적이 일치한다. 따라서 1929년부터는 표 자체의 정합성이 확보된다. 따라서 1930년대 삼포 면적을 확인하려는 이 글에서는 1929년 이후 1932년까지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sup>10)</sup>

『인삼사』 6권의 자료는 경기도 사례에서 보듯이 통계

표 자체의 불일치가 존재해서 자료의 신뢰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1929년 이후 통계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를 별도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1929년과 1930년은 구역 외 지역의 인삼 재배면적에 대해서 보도한 신문기사가 있다. 따라서 신문기사의 면적과 『인삼사』 제6권의 1929년과 1930년 통계를 비교함으로써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다.

당시 신문에 보도된 1929년도의 구역 외 지역의 도별 인삼경작 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sup>11)</sup>

[표 1]을 보면 여섯 개 도의 삼포 면적만 제시되어 있다. 또 도별 면적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한 이유는 신문 보도의 특성에 기인한다. 해당 신문기사는 인삼 경작 면적이 넓은 도와 경작 인원이 많은 도를 중심으로 1929년의 삼포 면적을 기사화하였다. 인삼 면적이 작은 도는 소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문에는 그러한 도의 면적이 생략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1년 후인 1930년에는 10개의 도에서 인삼이 경작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사화된 6개 도의 면적 합계는 504,450평이어서 신문이 제시한 총면적 644,600평과 14만여 평의 차이가 있다. 이는 신문에서 소개하지 않은 나머지 4개 도의 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신문기사는 1929년의 구역 외 삼포의 전체 면적을 제시하고 있어서 『인삼사』 6권에 수록된 1929년도의 총면적과 비교할 수 있다. 『인삼사』 제6권에 수록된 자료의 1929년도 총면적은 643,593평이다. 이는 신문기사의 644,400평과 1천여 평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1천여 평의 차이가 작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두 통계의

<sup>9)</sup> 인삼포지 면적 단위 한 칸은 1평에 해당함.

<sup>10)</sup> 1930년대 인삼업을 다루면서 1929년을 포함시킨 이유는 인삼업의 특징 때문이다. 인삼은 대개 5년 내외의 경작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1929년 삼포 면적의 적지 않은 부분이 1930년 이후로 이어진다. 이를 고려하여 1929년 통계도 참고를 위해서 수록하였다.

<sup>11)</sup> 『지정구역 외 인삼경작』, 『매일신보』, 1929. 10. 22.

표 2. 1930년도 구역 외 인삼 경작 면적(단위: 평)

도별	구분	경작면적 <sup>a)</sup>	경작면적 <sup>b)</sup>	경작인원	1인당 경작면적 <sup>b)</sup>
경기		68,100	68,144	60	1,136
충북		12,500	12,618	61	207
충남		30,800	30,764	14	2,197
전북		154,600	154,632	1,255	123
전남			7,604	83	92
경북		163,400	163,390	290	563
경남		48,900	48,873	1,134	43
황해		187,000	187,053	75	2,494
평북		800	800	1	800
강원		102,700	102,608	140	733
계		768,800	776,486	3,113	249

<sup>a)</sup>동아일보(1930. 12. 2), <sup>b)</sup>『인삼사』 자료 기준

유사성, 신뢰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인삼사』 제6권 통계의 신뢰도는 1930년 경작 면적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확실히 뒷받침될 수 있다. 1930년 삼포 면적도 당시 신문에 보도되었다. 그 기사를 토대로 1930년도의 경작 면적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sup>12)</sup>

[표 2]의 통계와 『인삼사』 6권 부록에 실린 1930년도의 면적을 비교하면 도별 면적이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사소한 불일치는 반올림 혹은 버림을 한 결과로 보인다.

이처럼 1929년과 1930년의 경작 면적에 대해서는 당시 신문에 보도된 자료가 있어서 『인삼사』 6권의 부록과 비교 검토할 수 있다. 그 결과 1930년의 경우 반올림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으므로, 『인삼사』 제6권의 1929년 이후의 경작 면적 통계는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당시 신문기사에 의하면 신문에 소개한 통계는 전매국이 조사한 결과였다. 전매국에서는 특별경작구역뿐만 아니라 구역 외 지역의 인삼업에 대해서도 기초

적인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갖고 있었다.<sup>13)</sup> 이마무라 도모는 전매국이 갖고 있던 이러한 조사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자료에서는 1929년부터 1932년까지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자료인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의 ‘특용작물’ 항목에 실린 인삼 재배면적 통계의 신뢰도를 검토하자. 이 자료에는 1933년부터 1943년까지의 인삼 재배면적이 수록되어 있다. 시기적으로는 『인삼사』 제6권 부록이 1932년까지 통계를 수록하고 있으므로 두 자료는 시기적으로 서로 맞닿아 있다. 그런데 『통계연보』 자료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가 앞서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한 『인삼사』 6권의 1930년 전후한 시기의 면적과 『통계연보』의 1933-36년의 인삼 면적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두 자료를 바로 연결시

<sup>12)</sup> 「각 도의 인삼 경작 면적 상황」, 『동아일보』 1930. 12. 2.; 今村靑, 『인삼사』 제6권 부록.

<sup>13)</sup> 뒤에서 보겠지만, 1933년까지는 구역 외 인삼 개설 허가권을 그 지역 행정 관청이 갖고 있었다. 따라서 각 지역의 행정 관청이 그 지역 삼포를 조사하고 그것을 전매국에서 취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1934년 2월부터는 전매국이 구역 외 삼포에 대한 허가권과 단속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각 지역 삼포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만 그 기록이 온전히 전하지는 않는다.

킬 수는 없다.

예컨대 『인삼사』 제6권의 통계에서 1932년 구역 외 인삼경작 총면적은 854,667평이다. 그런데 『통계연보』의 1933년 면적은 116.9정보, 즉 35만여 평에 그치고 있다. 1년 차이가 있는 두 연도의 통계를 서로 연결하기에는 그 격차가 너무 크다. 두 통계 사이의 이러한 격차는 1936년까지 이어진다. 1936년의 삼포 면적은 육지수의 글에 실려 있다. 육지수 글에 실린 통계에 의하면 1936년의 총면적은 1백20만 평이 넘었다. 그런데 『통계연보』의 1936년 면적은 60여만 평에 불과하다. 거의 두 배의 차이가 있다. 이처럼 『통계연보』의 1936년까지 통계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료들과 비교하여 너무 차이가 커서 그 신뢰도가 매우 낮다.<sup>14)</sup> 따라서 이 기간의 『통계연보』 자료는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1933년의 경우 구역 외의 인삼 면적에 대한 신문 보도가 있어서 그 총면적은 확인할 수 있다.<sup>15)</sup> 따라서 현재로서는 1934년과 1935년의 총 경작 면적 통계는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에 1936년과 1938년의 구역 외 인삼 면적 통계는 확보할 수 있다. 바로 육지수의 논문에서 수록된 통계들이 그것이다.<sup>16)</sup> 육지수의 글에는 1936년 조사 결과인 구역 외 지역의 군별 인삼 경작 면적이 수록되어 있다. 그는 자료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마무라 도모처럼 전매국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그가 군별로 제시한 1936년의 인삼 경작 면적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38년의 경작 면적도 육지수의 글에서 확보할 수 있다. 그는 같은 글에서 1936년의 군별 경작 면적 표를 제시하고 바로 이어서 도별 경작 면적표를 따로 제시하였

다.<sup>17)</sup> 이 표는 1936년 군별 면적에 바로 이어서 제시되고 있으므로 1936년 군별 면적을 도별로 합산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1936년의 전체면적과 이어서 제시된 도별 면적의 합계인 전체면적 사이에는 10만 평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10만 평이란 차이는 통계 정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로 보기에 그 차이가 너무 크다. 그런데 육지수 글의 도별 경작 면적은 『통계연보』의 1938년 통계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를 보면 육지수가 제시한 도별 면적은 1936년도 군별 면적의 합계가 아니라, 1938년의 도별 면적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육지수의 글에서 1936년과 1938년도의 구역 외 지역의 전체 삼포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서 『통계연보』 자료의 한 가지 특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자료는 구역 외 지역의 삼포 면적만 수록한 것이 아니라 인삼 특별경작구역 내의 삼포 면적까지 포함하고 있다. 육지수의 1938년 통계 역시 『통계연보』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특별경작구역과 구역 외의 삼포로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한다. 특별경작구역의 삼포 면적에 대한 통계는 연도별로 잘 남아 있다. 따라서 『통계연보』의 삼포 총면적에서 특별경작구역의 삼포 면적을 빼면 구역 외의 삼포 면적이 된다.

문제는 『통계연보』 통계의 신뢰도이다. 1938년의 경우 『통계연보』 통계와 육지수가 제시한 통계가 일치하므로 1938년의 자료는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1938년을 전후한 연도인 1937년과 1939년의 『통계연보』 수치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1936년과 1938년의 통계와 서로 추세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sup>18)</sup>

예컨대 『통계연보』의 1937년 구역 내외를 합친 전체

<sup>14)</sup> 왜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통계연보』의 1933-36년 자료는 구역 외 인삼 재배 지역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 것 같다. 아마도 몇몇 특정 도의 자료들만 수록하다보니 지나치게 과소 기재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sup>15)</sup> 「전 조선 인삼경작 전매국서 완전 통계」, 『조선일보』 1933. 12. 15.

<sup>16)</sup> 육지수, 「朝鮮人蔘の經濟地理的考察(未完)」, 『(조선총독부)조사월보』 12(11) (1941) p.2-7.

<sup>17)</sup> 육지수, 「朝鮮人蔘の經濟地理的考察(未完)」, 『(조선총독부)조사월보』 12(11) (1941) p.8.

<sup>18)</sup> 같은 『통계연보』의 자료임에도 1938년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반면 바로 이웃한 연도들인 1937년과 1939년의 통계는 신뢰하기 힘든 상황은 사실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필자도 아직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추후 더 많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다.

표 3. 1929~1943년 구역 외 삼포 면적 추이(단위: 평)<sup>a)</sup>

연도 도별	1929	1930	1931	1932	1933	1936	1938	1940	1941	1942	1943
경기	74,347	68,144	53,245	78,415	82,800	101,267	1,588,800	1,448,700	1,575,000	1,736,100	1,875,000
충북	11,277	12,618	22,969	26,570	39,700	73,604	78,900	80,700	78,600	95,400	111,900
충남	10,453	30,764	54,968	73,877	72,900	47,113	7,500				
전북	124,322	154,632	172,419	189,291	257,500	570,689	800,400	872,400	911,100	947,400	1,012,800
전남	6,075	7,604	5,386	2,310	2,200	9,260	4,500				
경북	115,654	163,390	199,480	208,770	178,000	193,486	177,300	213,300	275,100	318,900	354,300
경남	36,949	48,873	69,989	123,763	46,500	44,950	28,200	23,400	24,600	20,700	21,600
황해	182,513	187,053	74,499	13,617	48,500	9,429	18,300	255,000	279,600	288,600	314,400
강원	81,203	102,608	110,812	138,054	144,500	153,903	130,800	118,200	127,500	164,400	194,100
구역외 <sup>b)</sup>	642,793	775,686	763,767	854,667	872,600	1,203,701	1,335,011	1,394,927	1,585,017	1,664,498	1,841,005
구역내 <sup>c)</sup>	1,764,742	1,791,456	1,838,618	1,869,818	1,956,900	1,560,629	1,499,689	1,616,773	1,686,483	1,907,002	2,043,095
총계	2,407,535	2,567,142	2,602,385	2,724,485	2,829,500	2,764,330	2,834,700	3,011,700	3,271,500	3,571,500	3,884,100

<sup>a)</sup> 도별 면적: 1929~1936은 구역의 면적, 1938~1943은 구역내와 구역외를 합한 면적임

<sup>b)</sup> 구역외면적: 1929~1936년은 각 도의 재배면적을 더한 수치, 1938~1943년은 전체면적에서 구역내 면적을 뺀 수치

<sup>c)</sup> 구역내면적 출처: 조선총독부 편찬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각 연도판 참조.

출처: 1929년부터 1932년까지의 면적은 今村 蕪, 『人蔘史』 제6권, p.619-623에 의거함. 1933년의 면적은 「전 조선 인삼경작 전매국서 완전 통제」, 『조선일보』 1933. 12. 15. 1936년도의 재배면적은 육지수, 『조선인삼의 경제지리적 고찰』, 『조사월보』 12(11) p.2-8에 따름. 1938년의 면적 역시 육지수의 위의 글, 9쪽 및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38년도판 특용작물-인삼 항목에 따름. 1940-43년의 면적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각 연도판 특용작물-인삼 항목에 따름.

참조: 1938년과 1940-43년의 구역 외 인삼 재배면적은 자료에 직접 제시된 수치가 아니며,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의 총면적에서, 해당 연도의 특별경작구역 인삼 경작 면적을 제한 값을 제시한 것임. 한편 경기의 경우 1938년 이후의 면적에는 지정구역의 면적도 포함되어 있어서 매우 높게 나오고 있음.

삼포 면적은 1백30만 평이 채 안 되고, 1939년의 전체면적은 50만 평이 채 안 된다. 그런데 1936년의 구역 외의 삼포 면적만 1백20여만 평이고, 특별경작구역 면적은 1백56만 평이었다. 둘을 합한 전체 삼포 면적은 2백76만 평을 상회하였다. 1938년 면적을 보면 구역 외 총면적은 1백33만5천여 평이고 특별경작구역 총면적은 1백50여만 평으로, 둘을 합한 총면적은 2백83만4천여 평을 상회하였다. 따라서 『통계연보』에 기재된 1937년의 1백30만여 평, 1939년의 50여만 평은 도저히 1936년의 2백76만 평, 1938년의 2백83만4천 평과 통계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통계연보』의 1937년 1939년 통계를 활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구역 외의 삼포 면적 통계의 연도는 1929년부터 1933년까지, 그리고 1936년과 1938년이 된다.

『통계연보』에는 1940년부터 1943년까지 4개년의 삼포 면적 통계도 수록되어 있다. 이 통계는 1938년 통계와 추세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통계연보』의 1940년 면적을 보면 구역 외 총면적은 1백50만여 평, 특별경작구역 총면적은 1백62만여 평으로 둘의 합계는 3백여만 평이다. 이는 1938년의 2백83만여 평보다 약 18만여 평이 증가한 수치이다. 2년 동안 18만여 평의 증가이므로 1년에 약 9만 평 정도의 증가가 된다. 아래에서 서술하듯이, 당시 인삼 면적의 연도별 증가 추세와 비슷

하다.<sup>19)</sup> 다만 『통계연보』의 1940년 이후 수치를 비교 검토할 자료가 부족하여 그 신뢰도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참고를 위해서 1940년 이후의 『통계연보』의 경작 면적 통계도 제시하였다. 이 시기의 통계는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본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지는 않을 것이다.

이상의 자료 검토를 통해서 1930년대 신뢰도가 검증된 연도의 삼포 면적을 도별로 그리고 특별경작 구역과 구역 외로 구분해서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비록 1930년대 모든 연도의 통계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이 통계표를 통해서 1930년대의 전반적인 추이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인삼업의 성장과 도별 특징

#### 1. 삼포 면적 확대와 인삼업의 성장

1930년대 삼포 면적 추이를 통해서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구역 외 삼포 면적의 급증, 다시 말해서 인삼업의 놀라운 성장이다. 둘째는 구역 외 삼포 면적이 급증한 결과 구역 외 삼포 면적은 특별경작 삼포 면적과 거의 차이가 없는 비등한 수준이 된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우선 1930년대 인삼업의 성장 추세를 보자. 1929년의 구역 외 인삼 재배면적은 64만2천여 평이었다. 이 면적은 1920년대 초반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었다. 1921년의 구역 외의 인삼 경작 면적은 123,378평이었다. 1929년 면적은 1921년과 비교하면 거의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후 1925년까지 구역 외 삼포의 총면적은 20만 평을 넘지 못했다. 그러다 1926년에 27만여 평이 된 이

후 매년 10만여 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즉 1927년에는 41만여 평, 1928년에는 52만여 평 규모로 성장하였다.<sup>20)</sup> 1929년의 64만여 평은 1927년 이후 증가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구역의 재배면적은 1930년부터 1933년까지를 보면 매년 증가 추세는 아니었다. 1930년에는 1929년에 비해서 13만여 평이 증가하였다. 반면 1931년에는 전년에 비해서 11,919평이 감소하였다. 1932년에는 전년과 비교하여 90,900평이 증가하였다. 1933년에는 이전 해와 비교하여 17,933평이 증가하였다. 1929-33년 기간에 면적이 감소한 해도 있고 1만8천 평 증가에 그친 해도 있다. 그렇지만 다른 두 연도에는 10만 평 내외의 규모로 면적이 증가하였다. 1933년까지는 전반적으로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매년 비슷한 규모로 면적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감소한 해도 있어서 일관된 경향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면적이 증가한 연도의 경우 10만여 평 내외로 증가하였고, 감소한 면적은 1만2천여 평도 안 되는 규모여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기에도 증가 추세였다고 할 수 있다. 4개년 평균으로 보면 해마다 5만7천여 평 정도의 면적이 증가한 셈이었다.

1934년과 1935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1933년 자료를 기준으로 1936년 이후의 면적 변화를 살펴보자. 1933년에 87만2천여 평이었던 구역 외 인삼 경작 면적은 1936년에 1백20만여 평으로 급증하였다. 그 증가 규모는 33만여 평에 이른다. 1933년부터 1936년까지 3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해마다 11만여 평의 면적 증가가 있었던 셈이다. 1929-1933년 사이에 연평균 5만7천여 평의 증가와 비교해 보면 증가 추세가 한층 가팔라졌음을 알 수 있다.

1936년에서 다시 2년이 지난 1938년에는 그 총면적이 1백33만5천여 평으로 증가하였다. 그 차이는 131,310평이다. 두 해 동안의 증가이므로 연평균으로 보면 6만5천 평이 넘는다. 1933년부터 1936년 사이의 증가 규모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증가 추세로 매년 6만5천여 평의 삼포

<sup>19)</sup> 1941년에는 총면적이 3백27만여 평, 1942년에는 3백57만여 평, 1943년에는 3백88만여 평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신뢰한다면 1940년 이후에는 해마다 대략 25만여 평의 면적 증가가 있었던 셈이다. 당시가 전쟁이 확대되던 시기임을 감안하면 매년 25만 평 정도의 면적 증가는 현실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sup>20)</sup> 今村靑. 『인삼사』 제6권 (조선총독부 전매국, 1939) p.618-623.

가 새로 개설된 셈이었다. 이렇게 보면 1933년 이후 1938년까지 비록 1934년, 1935년, 1937년의 자료는 없지만, 전후 통계로 보건대 자료가 없는 해에도 면적 감소 없이 증가 추세였을 것으로 보인다.

1929년 이후 1938년까지를 보면 면적이 감소한 해가 없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였다. 연도별로 증가한 면적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증가 추세가 거의 10여 년간 이어졌다. 그 결과 1938년의 구역 외의 인삼 경작 면적은 1백33만5천여 평이 되었다. 이는 1929년의 64만2천여 평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1930년의 77만5천여 평과 비교하면 거의 60%에 가까운 증가였다. 1938년까지 작게는 5-6만 평 수준에서 많게는 10만 평 이상의 규모로 거의 매해 삼포 면적이 증가한 결과였다. 이처럼 1930년대 구역 외 인삼 경작 면적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인삼 재배면적의 급격한 증가를 통해서 이 시기에 구역 외 인삼업이 크게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시기 구역 외 인삼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다.<sup>21)</sup>

다음으로 1930년대 구역 외 인삼업이 특별경작구역 인삼업에 필적할 정도로 성장한 사실을 검토해 보자. 1930년대 초반까지 구역 외 인삼과 특별경작구역 인삼 면적 비중은 대체로 30 대 70 수준이었다. 그런데 1930년대 구역 외 삼포 면적이 급증한 반면 특별경작구역의 삼포 면적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 결과 193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전체 삼포 면적에서 구역 외와 구역 내가 차지하는 비중이 47 대 53 정도로 바뀌면서 거의 비슷해졌다.

두 구역의 삼포 면적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서 <표 3>에는 특별경작구역의 삼포 면적도 함께 제시하였다. 특별경작구역 인삼 면적의 추이를 보면 1933년까지는 해

마다 면적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1929년 1백76만4천여 평이었던 면적은 1933년에 1백95만7천여 평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증가 규모는 크지 않아서, 3-4만여 평에서 8만7천여 평 수준이었다. 1933년까지 구역 외의 인삼 면적도 증가하였지만 전체 삼포 면적에서 특별경작구역과 구역 외의 비중을 보면 대략 70 대 30 정도였다. 이 무렵까지만 해도 특별경작구역은 구역 외의 인삼업을 압도하였다.

그런데 1936년부터 특별경작구역과 구역 외 삼포 면적의 변동은 서로 다른 추이를 보였다. 구역 외의 인삼 면적은 1936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에 반해서 특별경작구역의 면적은 1936년에 1백56만여 평, 1938년에 1백50만여 평으로 1933년과 비교하여 각각 40여만 평, 46만여 평이 감소하였다. 그러다 1940년에 1백61만7천여 평, 1941년에 1백68만6천여 평으로 1938년과 비교하여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그렇지만 1933년의 면적에는 미치지 못했다. 1942년에는 1백90여만 평으로 1933년의 면적에 육박하였고, 1943년에 2백만 평을 넘어서서 확실하게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별경작구역의 인삼 경작 면적은 1936년 무렵부터 감소 추세였고 1941년까지 그러한 경향이 이어졌다. 반면 구역 외 인삼 경작 면적은 거의 매해 증가하는 추세였다. 193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두 구역 인삼 경작 면적의 변동이 상반된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1940년 이후가 되면 두 지역 삼포의 비중은 대략 53% 대 47%로 이전보다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처럼 1930년대 구역 외 인삼업은 특별경작구역 인삼업이 침체와 비교되면서 그 성장은 더욱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1930년대 구역 외 인삼업의 비약적인 성장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특별경작구역 인삼업의 부진이라는 극적인 변화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일까. 특별경작구역 인삼업의 침체는 일제의 침략 전쟁 확대라는 정치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바가 컸다. 반면 구역 외 인삼업에 대해서도 중요한 정책 변화가 있었지만, 면적 확대 추세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일제는 1930년대 들어 중국 침략을 확대하였다. 그 과

<sup>21)</sup> [표 3]에서 1940년부터 1943년까지 통계도 제시하였다. 『통계연보』의 인삼 면적 통계는 연도에 따라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 연도도 있어서 연도별로 교차 검토가 요구된다. 그런데 1940-43년 통계를 교차 검토할 자료를 아직 찾지 못했다. 그래서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구역 내 면적과 구역 외 면적의 비율이 4개년 동안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구역 내 면적은 정확한 통계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에서 중국 내에서는 일본 상품 배척 운동이 전개되었다. 배척 대상이 된 일본 상품에 홍삼도 포함되었다. 그래서 1930년대 전반기에는 홍삼 수출이 크게 부진하였다. 수출이 부진해지자 홍삼 생산을 줄여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배면적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특별경작구역 삼포 면적이 1930년대 중반에 감소로 돌아선 이유이다.

192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관세 인상과 일제의 중국 침략 확대에 의한 일본 상품 배척 운동 등으로 대중국 홍삼 수출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다. 당시 미쓰이 물산 경성 지점의 직원은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3배 이상이나 수입세가 인상되었으므로 비상한 타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더구나 일화 배척이 치열한 금일로는 이중 타격을 입는 터이다. ... 지금까지 수출량의 5할까지 소화를 하고 있던 상해가 아주 틀어졌다. ... 이번에 관세가 인상된 만큼 가격을 인상할지는 자못 의문이다. 작년 제품에 대하여는 이미 전매국과의 사이에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금년 가을분에 대하여는 여하한 가격으로 매매 계약할지 아직 하등 복안이 없다. 요(要)는 관세 인상보다도 일화배척이 여하히 될지가 중대 문제이다.<sup>22)</sup>

1929년 무렵 중국의 수입세가 크게 인상되면서 홍삼 수출에 타격을 주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일화 배척이 치열해지면서 이중의 타격을 받았다. 홍삼 수출에 관계하고 있던 미쓰이 물산 담당자는 중국의 관세 인상과 일화 배척으로 홍삼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말하면서 일화 배척이 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당시까지는 홍삼 불하 가격 협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삼포 면적 감소에 대한 언급은 볼 수 없다.

그러나 이후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일제의 침략 전쟁 확대에 그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던 것이다. 즉 만주사변이 발발하고 나서는 홍삼 수출이 더욱 큰 타격을 받았다. 중국으로 향하는 인삼은 미쓰이 물산이 취급하는

홍삼은 물론이고 개인이 취급하는 백삼도 만주사변 이래로 판매가 전연 끊기었다고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미쓰이 물산 인삼 관계자들은 개성에 와서 인삼업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하기도 하였다.<sup>23)</sup> 수출이 급감하는 만큼 그 대책은 홍삼 제조 수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홍삼 제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홍삼 원료인 수삼 생산을 줄여야 하므로 결국 경작 면적을 줄이는 수밖에 없었다. 경작 면적 축소는 기정사실이 되었다. 다만 한 해 삼포 투자를 전연 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매해 경작 면적을 일정 비율로 줄여나갈 것인지 그 방법을 둘러싸고 개성 삼포주들은 논의하였다.

그런데 한 해의 삼포 투자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인삼업은 단지 삼포를 개설하는 삼포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실제 인삼을 재배하는 과정, 홍삼과 백삼을 제조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하였다. 그들 중에는 그 작업에 참여해서 얻는 소득으로 생계에 큰 도움을 받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한 해 인삼 농사를 쉬게 되면 삼포주뿐 아니라 인삼 재배와 관련된 다수의 사람이 소득을 잃게 된다.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한 해 인삼 투자를 포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년 삼포 개설 면적을 줄이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1933년부터 종삼 식부 1백 칸에 대하여 24간씩을 축소하기로 개성삼업조합에서 결정하였다.<sup>24)</sup> 이러한 방침에 따라 1933년부터 특별 구역 내의 인삼 면적은 이전보다 축소된 면적을 개설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총 삼포 면적도 감소하게 되었던 것이다.

구역 내 인삼업에 대해 감작주의를 추진하면서 구역 외 인삼업에 대해서도 감작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즉 특별경작구역의 인삼경작에 대한 방침이 감작주의로 바뀌면서 구역 외 인삼경작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것은 전매국에서 구역 외 인삼 재배에 대한 허가권을 갖는 것이었다. 당시까지 구역 외의 인삼경작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관이 인삼경작 허가권을 갖

<sup>22)</sup> 「중국 관세 인상과 인삼의 영향 여하 3배 이상이나 올라서 타격」, 『조선일보』 1929. 2. 13.

<sup>23)</sup> 「인삼의 賣行 두절 협박받는 개성 재계」, 『조선일보』 1932. 2. 2.

<sup>24)</sup> 「홍삼 판매 지장으로 종삼 식부 축소」, 『조선일보』 1933. 2. 28.

고 있었다. 즉 1933년까지는 군수, 부윤, 도사 등의 지방관이 인삼경작 면허를 내주었다. 허가권이 전매국에 귀속되면서 구역 외 지역에서도 인삼 경작 면적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별경작구역의 인삼경작을 축소하면서 구역 외 인삼경작을 방임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또 개성 인삼업자들도 반발하고 있었으므로, 전매국에서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였다.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신문기사가 잘 전하고 있다.

만주사변 이래 지나에서 일화 배척으로 인하여 전매국 개성출장소에서 매년 제조하는 홍삼 4만여 근을 일수 판매업자 삼정회사를 거쳐서 지나, 남방과 남양 방면에 수출 판매하던 것이 작년도에는 겨우 6천 근을 판매하고 금년 1월부터 지난 11월 말일까지 겨우 1만5천 근을 판매한 고로 수년간 제조한 홍삼은 전매국 개성출장소 창고에 적치되어 있었다. 지난봄부터 매년 경작하는 36만여 평의 3분의 1을 감하여 겨우 25만 평을 경작하였는데 지나 시장 경기가 회복되기까지 당분간은 매년 25만 평씩 경작케 된다고 한다. ... 구역 외 인삼은 지방관 부윤 군수가 경작을 허가하여 왔었고, 전매국에서는 관계치 않았다. 그런데 지나 시장의 일화 배척은 완화되어 가나 매년 전매국에서 제조하는 홍삼의 반분도 팔리지 아니하여 구역 내 인삼경작 평수는 매년 축소를 시켰는데 구역 외의 인삼경작은 그 지방관이 허가하여 주는 고로 그 경작 면적은 매년 늘어가고 있어 구역 내에서 산출하는 백삼에 대하여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되며, 홍삼 밀조도 해마다 늘어가고 홍삼의 판매에 대하여 다대한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고려홍삼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 전매국 개성출장소에서는 구역 외 인삼 통일안을 연구하고 있던 중 전기 사실을 전매국과 총독부에서 보고하였던바, 총독부에서도 구역 외 인삼 통일이 필요하다 하여 구역 외 인삼 경작도 전매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변경하여 지난 12일부로 발표하였으므로 개성의 삼업자는 환약한다.<sup>25)</sup>

위 신문기사에서 보듯이, 1930년대 초반은 특별 구역은 물론 구역 외 지역에서도 삼포 개설과 관련하여 정책상 변화가 있었다. 그 목적은 특별경작구역 인삼 경작 면적 축소와 맞물려 구역 외 인삼업에도 일정한 통제를 가해서 삼포 면적의 증가를 규제하는 데 있었다. 이는 개성 삼포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구역 외 인삼업의 경우 앞서 보았듯이, 감작주의가 관철되지 않았다. 오히려 면적은 거의 매해 꾸준히 증가하였다. 전매국은 개성 삼업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매년 수만 평에서 10만여 평 내외의 삼포 신설을 허가하였다. 구역 외 인삼업이 애초 예상과는 달리 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었던 동력은 삼포민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방 행정 관청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몇 지역의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2. 도별 삼포 면적 추이와 특징

1930년대 구역 외 인삼업은 크게 성장하였지만, 도별로 인삼업의 상황은 많이 달랐다. 어떤 도는 193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면적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또 어떤 도는 오히려 면적이 감소하기도 하였다. 또 도별로 삼포 면적도 큰 차이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인삼경작이 이루어진 도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서 1930년대 도별 인삼업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1930년대 인삼경작이 이루어진 도를 보면, 북쪽의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하고 황해도와 강원도 이남 지역의 도에서는 모두 인삼이 재배되었다.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도 간헐적으로 인삼 재배가 시도되었지만 지속성을 지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하고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황해도, 강원도의 아홉 개도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1) 경기도

경기도의 경우 1929년의 삼포 면적은 7만4천여 평이

<sup>25)</sup> 「개성 전매 구역 외도 전매국에서 허가」, 『매일신보』 1933. 12. 15.

었다. 1930년에는 6만8천여 평으로, 1931년에는 5만3천여 평으로 감소하였다. 1932년에는 7만8천여 평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보면 1930년을 전후한 시기의 경기도의 구역 외 삼포 면적은 대략 6~7만 평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우리가 면적을 알 수 있는 1936년에는 10만 평을 넘어섰다. 1932년 이후 1936년 사이에 3~4만 평의 증가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1930년대 초중반 경기도의 구역 외 삼포 면적은 대개 7만 평에서 10만 평 사이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26)</sup> 구역 외 전체 삼포 면적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략 8%에서 10% 사이를 오갔다. 1930년대 중반까지 경기도의 구역 외 삼포는 10만 평 내외 혹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구역 외 전체 삼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0% 내외였음을 알 수 있다.<sup>27)</sup>

## 2) 충청북도

충북은 193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삼포 면적이 증가한 지역이었다. 1929년과 1930년에 충북의 삼포 면적은 1만 평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구역 외 전체 삼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도 안 되었다. 1931년과 1932년에는 2만 평대로 1만 평 이상 늘었다. 비중도 3% 대로 증가하였다. 1936년에는 7만4천여 평으로 7만 평을 넘었다. 1938년에는 7만9천여 평으로 8만 평에 육박하였다. 그에 따라 비중도 6% 수준으로 상승하였다.<sup>28)</sup> 이처럼 충북은 1930년대에 삼포 면적이 꾸준히 증가한 지역이었다. 1만 평 내외였던 삼포 면적은 거의 8만 평 수준으로 크게 증

가한 것이다. 경기도는 1930년대 일정한 비중을 유지했다면 충북은 확연히 면적과 비중이 증가한 지역이었다.

## 3) 충청남도

충남은 1930년 초반에는 면적이 증가하는 모습을,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면적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1929년 충남의 삼포 면적은 1만여 평으로 충북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1930년에 3만여 평으로 증가하여 충북의 삼포 면적을 능가하였다. 비중도 4%를 차지하였다. 1931년에는 5만5천여 평으로 다시 증가하였고, 그 비중도 7.2%로 상승하였다. 증가 추세는 1932년에도 이어져서 그 면적이 7만4천여 평에 달했다. 비중도 8.6%를 차지하였다. 이 시기가 1930년대 충남의 삼포 면적이 가장 넓었던 때이며, 충북의 삼포 면적을 크게 앞선 시기였다. 그런데 1930년대 중반인 1936년이 되면 삼포 면적이 4만7천여 평으로 감소하였다. 1938년에는 7천5백 평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감하였다. 그 결과 비중도 크게 감소하였다. 이웃한 충북의 경우 1930년대 내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충남은 1930년대 초반에 면적이 가장 넓었고, 1930년대 중반에는 면적이 급감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충남과 충북은 이웃한 도이지만 삼포 면적의 변동은 크게 달랐다.

1938년에 충남의 삼포 면적이 급감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충남의 경우 1936년 당시 서산군이 충남 삼포의 86%를 차지할 정도로 인삼 재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군이었다. 이런 서산군에 대해서 전매국은 삼포 재배를 불허할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sup>29)</sup> 다만 그 정책이 1939년 이후에 실시될 예정이어서 1938년의 면적 급감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서산군에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삼포 투자를 크게 줄이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sup>26)</sup> 경기도는 구역 내인 개성부와 개풍군 그리고 장단군이 있는 곳이다. 따라서 삼포 면적만 놓고 보면 경기도의 삼포 면적은 [표 3]의 면적보다 훨씬 넓었다. 이 글은 구역 외 인삼업 상황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구역 내 삼포는 제외한 결과임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sup>27)</sup> [표 3]의 1938년 경기도 삼포 면적은 구역 내 삼포까지 포함한 것이고, 이 해의 구역 외 삼포 면적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sup>28)</sup> 1940년대 자료를 신뢰할 수 있다면 1940년대 충북의 삼포 면적은 10만 평 내외로 또 한차례 크게 증가하게 된다. 다만 다른 지역의 삼포 면적도 증가하였으므로, 비중은 6%로 비슷하였다.

<sup>29)</sup> 「취체의 변잡 피코저 인삼 재배를 불허, 서산 특산에 일암영」, 『매일신보』 1938. 11. 26.

#### 4) 전라북도

전북은 당시 가장 대표적인 인삼 산지였다. 특히 1930년대 후반에는 다른 도를 압도하면서 실질적으로 인삼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1929년 전북의 삼포 면적은 12만 4천여 평이었고, 그 비중은 19.3%였다. 이는 황해도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전북의 삼포 면적은 1930년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1930년에는 삼포 면적이 15만 4천여 평으로 이전 해보다 3만여 평 증가하였다. 그리고 비중은 20%로 큰 변화는 없었다. 그렇지만 황해도와 경북의 삼포 면적이 더 넓어서 순위로는 3위였다. 1931년의 면적은 17만 2천여 평이었고, 그 비중도 22.6%로 조금 상승하였다. 이 해에도 경북의 삼포 면적이 가장 넓어서 순위는 2위였다. 1932년에도 이전 해보다 1만 8천여 평이 늘어서 전체 삼포 면적은 19만여 평이 되었다. 비중은 22%로 이전과 비슷하였다. 이 해 역시 경북의 삼포 면적이 가장 넓어서 2위의 자리를 유지하였다.

1933년부터 1935년까지 3년간의 삼포 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그 기간에 삼포 면적이 크게 증가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1936년 전북의 삼포 면적이 무려 57만여 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이는 2위를 차지한 경북의 20만여 평보다 거의 3배에 가까운 큰 면적이었다. 이 무렵부터 전북은 삼포 면적에서 다른 도들을 압도하는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그 비중을 보아도 1930년대 초반에는 2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는데, 1936년에는 47.4%를 접하였다. 당시 구역 외 삼포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삼포가 전북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다.

전북의 삼포 면적의 급증은 이후에 지속되었다. 1938년 전북의 삼포 면적은 무려 80만 평에 달하였다. 이는 당시 구역 외 삼포 면적의 60%를 차지하는 규모였다. 1930년대 중반 인삼업의 성장은 바로 전북 인삼업의 성장에 기인하는 바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북 인삼업의 성장을 이끈 지역은 다른 아닌 금산군이었다<sup>30)</sup>. 그리고 금산군에 가려져 있지만 무주군, 진안군도

1936년 당시 구역 외 인삼경작 군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넓은 삼포를 갖고 있었다. 면적 크기로 상위 5위 안에 세 개의 군이 전북 소속이었다. 그런 만큼 전북인들의 삼포 경영은 다른 도를 압도하고 있었다. 1930년대 구역 외 삼포 면적의 확대와 인삼업의 성장을 이끈 도는 전북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31)</sup>

#### 5) 전라남도

전남은 전북과 이웃해 있지만 인삼업의 상황은 크게 달랐다. 1930년대 전남의 삼포 면적은 1만 평을 넘어선 적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가장 넓었을 때가 1936년으로 그 면적은 9천 평을 조금 넘는 규모였다. 따라서 그 비중도 1%를 넘어선 적이 없다. 이처럼 전남은 9개의 도 중에서 삼포 면적이 가장 작았던 곳이고 그 비중도 미약했다.

#### 6) 경상북도

경북은 1930년대 중요한 인삼 재배지였다. 삼포 면적은 1930년대에 항상 10만 평 이상이였다. 한때는 20만 평에 달한 적도 있을 정도로 인삼업이 활발하였다. 대체로 전북에 이어 제2위의 자리를 차지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전북이 1930년대 내내 지속적으로 면적이 증가한 지역이라면, 경북은 1930년대 전반에 면적이 크게 증가하였고, 1930년대 중반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서 전북과 대비된다. 1930년대 대표적인 두 개의 인삼 산지라고 할 수 있는데 1930년대 그 변동은 차이가 있었다.

1929년 경북의 삼포 면적은 12만여 평이었고 비중은 18%를 접하였다. 이는 당시 황해도와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였다. 전북과는 채 1만 평도 차이가 나지 않았다. 1930년에는 16만 3천여 평으로 1년 사이에 4만여 평이 증가하였다. 비중도 21%로 높아졌다. 순위도 전북을 제치고 황해도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경북의 삼

<sup>30)</sup> 당시는 금산군이 전라북도에 속했다.

<sup>31)</sup> 참고로 1943년 전북의 삼포 면적은 100만 평이 넘는 것으로 나오고 그 비중은 55%였다. 이 자료는 신뢰도에 문제가 있지만, 만약 이 자료가 당시 실정을 반영한다면 이는 전북 한 도에서 100만 평 이상의 삼포가 있었음을 의미하므로 당시 인삼업의 발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포 면적은 1932년까지 증가하였다. 1931년에는 거의 20만 평에 달했고 비중은 26%를 조금 넘었다. 이 해는 경북의 삼포 면적이 가장 넓어서 구역 외의 도 중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1932년에는 20만 평을 넘어섰고 그 비중은 24.4%였다. 이 해에도 경북은 수위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1930년대 초반 경북은 인삼 면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성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36년의 삼포 면적은 19만4천여 평, 1938년의 삼포 면적은 17만7천여 평으로 1932년에 비해서 감소하였다. 비중 역시 각각 16%와 13%를 차지해서 1932년과 비교하여 줄어들었다. 앞서 보았듯이, 이 무렵 전북의 삼포 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경북은 감소하였다. 다만 다른 도 역시 삼포 면적이 감소하여서 이 두 연도에 경북은 전북에 이어 2위의 자리를 유지하였다.

이처럼 경북의 삼포 면적은 1930년대에 10만 평을 넘어섰고, 1930년대 초반에는 그 면적이 20만 평에 달하기도 하였다. 이때 경북은 가장 넓은 삼포를 가진 도였다. 1930년대 중반에는 면적이 조금 감소하였지만 18만 평에서 20만 평 수준으로 면적 자체는 매우 넓었다. 1930년대 경북의 인삼업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활기를 띤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 7) 경상남도

경남은 면적 규모는 경북보다 작았지만 시기별 추이는 경북과 비슷하였다. 1929년 경남의 삼포 면적은 3만7천여 평이었고 그 비중은 5.7%였다. 이후 1932년까지 삼포 면적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래서 1930년에는 4만9천여 평으로 5만 평에 육박하였고 비중도 6.3%로 증가하였다. 1931년에는 7만여 평으로 또다시 크게 늘었고 비중도 9.2%가 되었다. 경남의 삼포 면적은 1932년에 정점에 이르는데, 이 해의 삼포 면적은 12만4천여 평에 달했다. 비중도 거의 15%에 이르렀다. 그런데 1936년과 1938년에는 삼포 면적이 크게 감소해서 각각 4만5천여 평, 2만8천여 평으로 나온다. 그 비중도 3.7%, 2.1%로 크게 감소하였다. 경북도 비슷하게 1930년대 중반 이후 면적이 감소하

였지만, 경남의 경우 그 감소 폭이 훨씬 더 컸다.<sup>32)</sup> 1930년대 전반기에는 수만 평에서 최대 12만 평 규모였던 경남의 삼포 면적은 193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4만 평 대, 2만 평대로 급감하였다.<sup>33)</sup>

### 8) 황해도

황해도는 그 변화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당혹스럽기까지 한 지역이다. 1929·30년에 황해도는 구역 외 지역에서 삼포 면적이 가장 넓은 도여서, 전북과 경북을 제치고 수위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1931년부터는 상식적으로 설명이 힘들 정도로 면적이 급감하였다. 1929년 황해도의 삼포 면적은 18만3천여 평으로 2위 전북과 큰 차이를 보이면서 수위를 차지하였다. 당시 비중은 28.4%였다. 황해도의 면적은 1930년에도 18만7천여 평으로 24.1%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수위였다. 그런데 1931년에는 7만5천여 평으로 급감하였다. 비중도 10% 정도로 크게 줄었다. 1932년에는 1만4천여 평으로 더 급감하였다. 비중은 1.6%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이후 1936년에는 9천4백여 평으로 1만 평이 채 안 되었다. 1938년에는 1만8천여 평으로 증가하였지만 1930년 무렵과 비교하면 거의 1/1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다른 도와 달리 황해도는 1930년대 중반으로 갈수록 면적이 급감하였다.

그 이유를 밝혀 줄 자료를 찾기는 힘들다. 다만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해볼 수 있다. 황해도 내의 금천군, 봉산군, 중화군, 서흥군 등은 인삼 특별경작 구역에 포함된 군들이었다. 따라서 개성의 삼포주들은 이 지역에 많은 삼포를 개설하였다. 그들 중 일부는 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삼포를 개설하였다고 생각한다. 홍삼 수출이 순조로울 때는 개성인들이 황해도의 구역 외 지역에서 인삼을 활발하게 경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1920년대 후반부터 홍삼 수출이 어려워졌다, 그 여파로 특별경작

<sup>32)</sup> 1943년 자료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서 2만2천여 평에 불과하였고 비중도 1.2%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sup>33)</sup> 경북과 경남 지역에서 1930년대 중반 이후 전북과 달리 삼포 면적이 감소한 이유를 밝혀줄 자료를 찾지 못했다. 이 문제는 추후 자료 발굴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한다.

구역의 삼포 면적을 축소했음은 앞서 보았다. 이러한 특별경작구역의 인삼업 위기가 개성의 삼포주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황해도의 구역 외 인삼업에 대한 투자를 축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 9) 강원도

강원도의 삼포 면적은 1930년대에 10만 평 이상을 유지하였고, 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1929년 강원도의 삼포 면적은 8만1천 평 규모였다. 비중은 12.6%로 황해, 전북, 경북에 이은 4위였다. 1930년에는 10만 평을 넘어섰고 비중도 13.2%로 조금 상승하였다. 순위는 여전히 4위였다. 1931년에는 11만 평을 초과하였고 비중은 14.5%였다. 순위는 경북과 전북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다. 1932년에는 13만8천여 평으로 이전 해보다 2만8천여 평이 늘어서 증가 추세는 지속되었다. 비중도 16.2%로 크게 상승했고 순위도 경북, 전북에 이어 3위 자리를 지켰다. 1936년에는 삼포 면적이 15만4천여 평으로 15만 평을 넘었다. 비중은 13% 정도로 조금 감소하였고 순위는 3위였다. 1938년에는 13만 평으로 1936년보다 2만3천여 평이 감소하였다. 비중도 9.8%로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순위는 전북, 경북에 이어서 3위였다.

이처럼 강원도의 경우 1930년에 10만 평대로 면적이 증가한 이래 1938년까지 10만 평 이상의 삼포 면적을 유지하였다. 특히 1936년에는 15만4천여 평으로 면적이 최고에 이르렀다. 이후 조금 감소하기는 하지만 13만 평대를 유지하였다. 강원도는 꾸준히 10만 평 이상의 삼포를 갖고 있었는데 1930년대 이러한 규모의 면적을 꾸준히 갖고 있던 도는 전북과 경북 그리고 강원도였다. 1930년대 강원도는 전북, 경북에 이어서 인삼업이 활기를 띤 곳이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구역 외 인삼은 전체적으로 1930년대 크게 성장하였지만, 도 단위에서는 그 상황이 많이 달랐다. 인삼경작이 활발한 도는 대개 전북, 경북, 강원이었다. 경기도와 경남은 10만 평 수준의 삼포가 있어서 그 뒤를 이었다. 충북, 충남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개 6-7만 평 내외의 규모였다. 반면 전남은 인삼경작이 이루어졌지만 1930년대는 1만 평이 채 안 되는 규모여서 활기를 띠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황해도는 1930년대 초반에는 삼포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이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인삼경작이 위축되어 다른 도와는 너무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인삼경작이 비교적 활발했던 도의 경우에도 연도별로 삼포 면적의 차이는 적지 않았다. 1930년대 초반에는 황해도가 가장 활발한 도였다. 그렇지만 1930년대 중반에는 매우 부진하였다. 반면 전북이나 경북은 1930년대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인삼경작이 가장 꾸준히 활기를 띠었다. 특히 전북의 삼포 면적은 1930년대 중후반이 되면 구역 외의 전체 삼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이 무렵 전북은 다른 도들을 압도하면서 구역 외 인삼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었다.

## IV. 삼포민의 활동과 당국의 지원

여기에서는 1930년대 구역 외 인삼업의 성장 요인인 삼포민의 활동과 당국의 지원 문제를 경북의 예천군, 경기도의 강화군, 충북의 제천군의 사례를 통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 세 개 군은 금산이나 풍기처럼 당시에 가장 인삼경작이 활발했던 대표적인 지역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1936년 당시 인삼경작이 이루어진 91개 군 중에서 삼포 면적 순위를 보면 강화군이 8위, 예천군이 9위, 제천군이 13위였다. 이들 세 개 군은 91개 군 중에서 대체로 10위 내외의 순위에 있던 지역들로 인삼업이 비교적 활기를 띠었던 곳들이다. 그리고 1930년대 상황을 알려주는 신문기사들도 있어서 이 세 개 군의 사례를 통해서 1930년대 인삼업의 성장 요인을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1. 경북 예천군

예천군에서는 한말에 이미 인삼을 재배했다는 기록

표 4. 예천군의 삼포 면적(단위: 평, 명)

연도	1922	1923	1924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6
면적	803	1034	915	8,776	8,778	10,728	16,582	19,258	41,040	42,935	40,065
경작인원											89

이 있다. 그런데 1908년 무렵에는 인삼을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다 1920년대 들어 다시 인삼경작이 시작된 것 같다. 예천군의 인삼 재배와 관련해서 당시 신문기사에서는, 1924-25년 무렵부터 조선 인삼을 재배하는 사람이 점차로 많아지더니, 1931년 무렵에는 군내 거의 각 면에서 심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다.<sup>34)</sup> 또 다른 신문기사는, 1926년에 보문면 한 부락에서 경작을 시험하였는데, 인삼 재배에 토지와 기후가 알맞아서 품질이 양호하므로 인삼 재배가 확대되어 1933년 무렵에는 보문, 감천, 상하리 등지에서 경작하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sup>35)</sup> 이 두 기사가 전하는 인삼 재배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마무라도모의 『인삼사』 6권 부록에는 1922년부터 예천군에 삼포가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1920년대 초반 무렵에는 인삼 재배가 다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예천군의 삼포 면적을 정리한 것이 [표 4]이다.

1922년 예천군의 삼포는 803평이었다. 이후 1932년까지 지속적으로 면적이 증가하였다. 1923년에는 1천 평을 넘었고, 1926년에는 8천8백여 평으로 급증하였고, 1928년에는 1만 평을 초과하였다. 1930년에는 1만9천여 평으로 2만 평에 육박하였고 1931년에 4만1천여 평으로 4만 평을 초과하였다. 이후 1936년까지 4만 평 이상의 규모를 유지한 것으로 나온다. 예천군은 1920-30년대 삼포 면적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1930년대 4만 평 대의 삼포를 가진 군이었다. 이는 당시 91개 군 중에서 9위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예천군에서 삼포 면적이 증가하게 되자 삼포민들은 1930년대 들어서 삼업조합을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 조합의 목표는 예천 인삼을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데 있었

다. 인삼은 다른 물건과 달라서 대외적인 성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삼 업자들 사이에 서로 연락 통제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1931년 9월 6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예천삼업조합을 설립하였다.<sup>36)</sup>

그런데 이때 설립된 예천삼업조합은 유명무실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1933년 5월 16일에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삼업조합을 조직하였다. 이전 삼업조합 창립 기사와 이때 창립총회 기사를 비교하면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두 번째 창립총회를 보도한 기사에는 군 당국에서 예천 인삼의 품질이 다른 지방의 것보다 좋다고 하므로 장래 유망한 지방 생산물이라 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장려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있다.<sup>37)</sup>

1931년에 창립된 삼업조합을 소개하는 기사에는 군 당국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당시 인삼을 경작하려면 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런 만큼 군 당국의 간섭과 통제를 피하기 어려웠다. 처음 세워진 삼업조합이 순수하게 삼포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인데 반해서 후자는 군 당국의 개입 하에 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천삼업조합에 대한 이후의 기사에서는 ‘조합이 당국의 지시 감독에 의하여 조직된 기관’이라고 하면서 서술을 시작하고 있다.<sup>38)</sup>

두 번째 조합이 설립된 1933년에 예천군의 인삼경작자

<sup>36)</sup> 「예천에 삼업 발전」, 『동아일보』 1931. 9. 10. 당시 삼업조합 간부는 다음과 같다. 조합장 김석희, 부조합장 윤치희, 이사 박사홍, 감사 장기우, 이유석, 평의원 황영흠, 임국표 외수명.

<sup>37)</sup> 「예천의 삼업」, 『동아일보』 1933. 5. 20.; 「삼업조합 설립 去16일 예천군에서」, 『조선중앙일보』 1933. 5. 22.

<sup>38)</sup> 「예천삼업조합」, 『조선일보』 1933. 9. 16. 1930년대 지역별로 인삼 기사가 많이 나온다. 이들 기사는 대개 행정 당국이나 전매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허가권을 갖고 있는 당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부정할 수 없지만 자칫 삼포민이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 당시 기사를 볼 때는 이런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sup>34)</sup> 「예천에 삼업 발전」, 『동아일보』 1931. 9. 10.

<sup>35)</sup> 「예천삼업조합」, 『조선일보』 1933. 9. 16.

는 50여 명, 그 면적은 6만여 평이었다는 기사가 있다[그림 1].<sup>39)</sup> 조금 늦은 시기의 기사에서는 1933년 당시 삼엽조합의 조합원은 26명이며, 경작 평수는 6만여 평이고, 수확 평수는 1만3천여 평으로 수확 수삼량은 1만5천 차(매차 200문)<sup>40)</sup>이며, 시가 2만4천 원이라는 거액에 달한다고 하였다.<sup>41)</sup> 1933년의 삼포 면적 6만 평은, 위 표를 보면 다소 돌출적인 느낌이 있다. 그리고 경작 인원은 50여 명인데 조합원은 26명이라고 한 것을 보면 경작자 모두가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아마 가내 소비용으로 인삼을 경작하던 사람들은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로 설립된 예천삼엽조합의 목적은 이전과 다르게 표현되었다. 삼포민 개개인이 인삼 재배와 판매에 능률을 내는 것은 좋지만 현안에 대해서 삼포민들 사이에서 제대로 협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갈등하는 일이 생기면 오히려 지방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인삼 생산자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관철하기 위해서 삼엽조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합 설립과 군 당국의 지도 장려가 있어서 앞으로 예천의 인삼업은 경제계에 일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예천삼엽조합의 사업을 일별하면 다음과 같았다.

- ① 종자 삼묘, 비료 기타 삼엽에 필요한 원료 및 기계 기구 등 공동구입 알선
- ② 종자 삼묘 기타 생산품의 검사 및 판매원 및 판로 알선
- ③ 인삼경작 구역 및 병해 구제 예방 방법 조사 연구 및 지도 장려
- ④ 기타 삼엽의 개량 발달 및 조합의 이익 증진 상 필요한 사항.<sup>42)</sup>

이를 보면 삼엽조합은 크게 인삼 재배와 인삼 판매 두 방면에 중점을 두어 조합원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하였다. 인삼 재배와 관련해서는 종자 및 삼묘 그리고 비료 및 기계 등을 공동 구입하여 알선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 인삼 병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것이었다. 수확한 인삼을 판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조합은 생산품을 검사하고 판로를 알선한다고 하였다. 개개인의 노력보다는 조합을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삼포민들 입장에서는 유리하였고, 인삼의 품질을 유지하여 성가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예천삼엽조합이 결성되어서 예천의 인삼업은 어려운 시기에도 무난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예컨대 1939년에는 한재가 있었지만 예천삼엽조합이 장려한 결과 1만 평의 수확이 있고, 생산량도 수삼 1만1천 근, 백삼 2천 근으로 가격 7만여 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조합에서는 이 생산물에 대해서 가격을 공정하였는데, 특상품 14원 50전으로부터 8원 60전까지였다.<sup>43)</sup>

예천의 삼포민들은 삼포 면적이 확대되고 경작 인원도 증가하자 1930년대 들어 삼엽조합을 결성하였다. 민간 주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관 주도로 할 것인지를 두고 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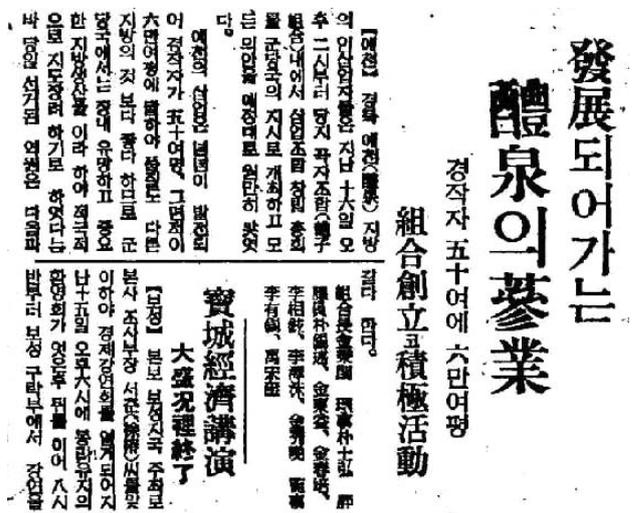


그림 1. 『동아일보』 1933. 5. 20.

<sup>39)</sup> 「발전되어 가는 예천의 삼엽」, 『동아일보』 1933. 5. 20.

<sup>40)</sup> 인삼 1차는 750g, 1문(文)은 3.75g

<sup>41)</sup> 「예천삼엽조합」, 『조선일보』 1933. 9. 16.

<sup>42)</sup> 「예천삼엽조합」, 『조선일보』 1933. 9. 16.

<sup>43)</sup> 「예천삼엽총회」, 『동아일보』 1938. 6. 3.

표 5. 강화군의 삼포 면적(단위: 평)

연도	1924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5	1936
면적	1,200	8,473	20,172	22,319	23,865	17,265	13,851	27,366	40,734	41,798

등이 있었던 것 같지만 여하튼 설립된 조합은 인삼 재배와 생산품 판로를 위해서 활동함으로써 예천의 인삼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2. 경기도 강화군

경기도 강화군에서도 1930년대 인삼경작이 활기를 띠었고 삼포민들도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강화 인삼 재배에 대한 일제강점기 이전 자료는 찾기 어렵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강화에서 인삼 재배는 192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한 신문기사는, 강화 인삼은 그 역사로 보아 상당히 오래다고 하면서 1919년경에 70여 명의 경작 희망자가 있었는데 당국의 허가 문제로 불과 20명의 경작자가 있었다고 하였다.<sup>44)</sup> 다른 기사에서는 초기에는 경작자가 임현영 외 수인에 불과하였다고 한다.<sup>45)</sup> 이를 보면 1919년 무렵부터 몇몇 사람이 강화도에서 인삼을 재배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1920년대 군별 인삼 재배면적을 수록한 자료를 보면, 강화도의 경우 1924년부터 그 면적이 기재되어 있다. 이 자료는 1921년부터 각 군의 면적을 수록하고 있는데, 강화도의 경우 1921-23년에는 삼포 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상의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대개 192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강화도에서 인삼 재배가 시작된 것으로 짐작된다. 1920-30년대 강화도의 삼포 면적은 [표 5]와 같다.

1924년 1천2백 평이었던 강화도의 삼포는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었다. 1926년에는 8천5백여 평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1927년에는 2만여 평으로 나오는데, 이는 전년보다 거의 1.5배 급증한 것이다. 1928년에는 2만2천

평 이상이었고, 1929년에는 2만4천여 평 규모였다. 1930년에는 1만7천여 평으로 감소하였다. 감소 추세는 1931년까지 이어져서 1만4천여 평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1932년에는 다시 2만7천여 평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1936년에는 4만2천여 평으로 당시로써는 가장 큰 규모였다. 강화도의 삼포 면적은 증감이 있었지만 대개 증가하는 추세였고, 1930년대 중반에는 4만 평이 넘는 삼포를 지닌 군이 되었다. 이는 당시 인삼을 경작하던 91개 군 중에서 7위에 해당하는 큰 면적이었다.

1927년 이후 강화도에는 2만 평 이상의 삼포가 있게 되면서 1931년에 인삼조합이 설립되었다. 조합 설립 배경에 대해서 당시 조합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그림 2].

원래 인삼이라고 하면 누구나 개성의 고려인삼을 연상하는 만큼 고려인삼은 한약계에서 영약의 조종으로 그 성가가 해내외에 높은 동시에 일종의 신물(神物)로 인정되어 다른 지방에서는 재배할 염두를 두지 못하였다. 그런데 근대 과학의 발전에 따라 단지 개성 등지의 독재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강화군에서도 유지 사이에서 시험 재배를 한 결과 그 성적이 개성 인삼에 비하여 조금도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품질이나 약효에서 오히려 우수하다는 평판이 자자하게 되므로, 인삼업의 유



그림 2. 『조선일보』 1935. 9. 11.

<sup>44)</sup> 「강화의 인삼구역 편입 운동」, 『조선일보』 1936. 8. 23.

<sup>45)</sup> 「강화 인삼 연산 10만 원」, 『동아일보』 1936. 8. 26.

망함을 확신하고 1931년 6월 25일에 강화인삼조합을 창립하게 되었다.<sup>46)</sup>

조합장은 개성 인삼이 신물로 인정되어 다른 지방에서는 재배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이는 개성 이외 지역에서 인삼업이 부진했던 상황을 나름의 논리로 설명한 것이다. 실제로는 아래의 충북 덕산 인삼 사례에서 보듯이, 경작자금 부족이 인삼업 부진의 큰 이유이었지만, 조합장은 그보다는 '신물'이란 표현으로 구역 외 지역에서 경작의 부재 혹은 부진을 말하였다. 그리고 근대 과학의 발전에 따라 인삼이 개성의 독재물이 아님을 알게 되어 개성 이외 지역에서도 인삼을 경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인삼 재배의 확산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당국의 허가과 경작자금 해결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따라서 조합장의 논리는 설득력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개성 중심의 인삼업이 1920-30년대 들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인삼업이 확대되어 가던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강화인삼조합 창립 이후의 상황을 보면, 각 조합원의 노력과 조합 이사의 지도에 의해서 1935년 8월 말 현재 조합원은 15인, 경작 면적은 본포 40,734평, 묘포 1,845평에 달했다. 그리고 앞으로 적어도 1만 평 내외로 계속 재배하기로 담당 전매국과도 협의하여 착착 매진 중이라고 하였다.<sup>47)</sup> 강화인삼조합은 삼포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매국과 교섭하고 있는 사실이 주목을 끈다. 당시 삼포 개설 허가를 전매국이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삼포 면적을 유지 혹은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매국과 교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화인삼조합은 조직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었다.

강화인삼조합이 중점을 두고 전개한 활동은 좀 독특하였다. 강화인삼조합은 강화도를 인삼 특별경작구역으로 편입시키려는 운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강화 인삼은 재배가 시작된 이래 그 성적은 괄목할 만하고 또 기후가 인삼경작에 적당하지만, 당시까지 대내외적으로 선전 관계로 알려짐이 적었다. 1936년에 채취할 수삼만도 1만5천 근이나 되며 품질도 개성 인삼에 지지 않는데 전매국에서는 강화도를 구역 외라 해서 홍삼 원료로 취급하지 아니하므로 강화 삼포민들은 이에 대해 큰 불만을 갖고 있었다. 강화 삼포민들은 강화도를 구역 내로 편입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서 강화 인삼조합에서는 당업자의 이익과 강화 삼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조합 이사를 당국 요로(전매국장, 개성출장소 등)에 출장케 해서 대대적으로 구역 편입을 운동하기로 하였다.<sup>48)</sup>

특별경작구역 편입 운동에 대해서는 당시 언론도 관심을 보여서 여러 신문사에서 기사로 다루었다. 즉 강화 인삼조합에서는 인삼 품질을 옹호하기 위하여 강화 인삼을 개성 구역 내로 편입 실현을 기하고자 재차 맹렬히 운동하는 중이며, 1936년 9월 18일에는 군민 대표의 자격으로 전근수는 경성과 개성의 전매국 요로 당국에 진정키로 하고, 편입 운동에 대해 철저히 활동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sup>49)</sup>

그리고 강화 삼포민들의 구역 내 편입 운동에는 강화 군수도 동참하였다. 한 기사를 보면, 강화인삼조합은 창설 이래 그 성적이 호황을 이루었고 또 인삼 품질이 개성보다 조금도 손색이 없는 상품 가치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전매국에서는 너무 무관심하므로 이 기회에 적극적인 운동을 개시하기로 하여서 강화군수, 인삼조합 이사 등이 구역 편입 운동을 위해 개성으로 출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역 편입은 강화 인삼업자에게는 생명선인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전매국이 좀 더 성의를 표하기를 기대하였다.<sup>50)</sup>

구역 내로 편입되면 경작자금 조달 등에서 혜택을 받

<sup>46)</sup> 「삼업계 왕좌를 목표 우리 조합은 매진」, 『조선일보』 1935. 9. 11.

<sup>47)</sup> 「삼업계 왕좌를 목표 우리 조합은 매진」, 『조선일보』 1935. 9. 11.

<sup>48)</sup> 「강화의 인삼 구역 편입 운동」, 『조선일보』 1936. 8. 23.

<sup>49)</sup> 「강화 인삼을 개성 구역에 편입 업자의 운동 맹렬」, 『매일신보』 1936. 9. 22.; 「강화 인삼 연산 10만 원」, 『동아일보』 1936. 8. 26.

<sup>50)</sup> 「강화인삼소서 구역 편입 맹운동」, 『조선일보』 1936. 11. 27.

을 수 있었다. 또 판로에서도 안정적으로 홍삼 원료로 제공할 수 있고 강화 인삼을 선전하는 데도 유리하였을 것이다. 강화도 삼포민들은 이러한 혜택을 염두에 두고 구역 편입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을 것이다. 삼포민들의 활동에 군수까지 동참한 사실이 시선을 끈다. 강화군수는 인삼업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아울러 인삼조합의 요청도 있어서 진정 운동에 직접 참여하였을 것이다.

조합과 군 당국의 노력이 영향을 끼쳤는지 전매국 관계자가 강화도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강화 인삼은 매년 생산액이 증가하고, 품질도 양호하여 전매국에서도 강화 인삼의 전도를 유망시하고 강화인삼조합이 장려하고 있는 구역 편입 활동에도 많은 주의를 두고 있다고 하면서 전매국장이 강화도의 인삼 채취 상황을 시찰하러 왔던 것이다.<sup>51)</sup> 강화 삼포민들은 전매국 관계자의 강화 삼포 방문에 큰 기대를 걸었을 것이다. 그러나 강화 인삼의 구역 내 편입은 일제강점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화 인삼이 구역 내로 편입이 이루어진 것은 편입 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10여 년이 흐른 1946년이 되어서였다.<sup>52)</sup>

한편 1930년대 들어서 주요 인삼 산지의 인삼에 관한 기사가 부쩍 증가한다. 1920년대에는 구역 외 인삼 관련 기사가 많지 않았던 것과 대비가 된다. 1930년대 구역 외 인삼업 관련 기사의 증가는 그 자체로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강화도는 특히 관련 기사가 많은 곳 중의 하나였다. 1937년에는 강화 인삼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 그런데도 관련 기사가 있고 그 논조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고려인삼의 명산지인 개성을 불과 얼마 되지 않는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둔 강화에서 원산지에 생산되는 인삼보다도 품질에서 우량품을 생산하게 되어 금년에는 그 산액

이 1만7천여 칸이며, 가격에서도 10만 원을 초과하고 있다. 강화 인삼이 이같이 놀라운 성적을 나타낸 것은 일반도 놀라는 바이다. 벌써 그 성가도 내외에 떨치게 되어 채취되기가 바쁘게 매진된 형편이다. 금년도에는 지나사변 관계의 영향을 면치 못하여 가격에서는 그리 좋지 않으나 강화의 인삼은 앞으로 주목될 정도까지 발전성을 띠고 있다.<sup>53)</sup>

당시 구역 외 인삼 관련 기사의 논조는 비슷한 경향이 있었다. 그 지역은 지질 기후 등이 인삼 재배에 적당하다. 그리고 산출된 인삼은 개성 인삼을 능가하는 좋은 품질을 지녔다. 매년 인삼 수확 성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생산되자마자 판매가 완료될 정도로 인기가 좋다. 대개 이러한 논조의 기사가 다수를 차지한다. 위의 강화 인삼 관련 기사도 이러한 논조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인삼 기사가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인삼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고, 해당 지역 삼포민들 입장에서는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다.

강화인삼조합이 항상 순조롭게 운영된 것은 아닌 것 같다. 1939년에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오랜만의 총회였다고 한다. 그 사이에 여러 차례 총회를 소집하고자 이사 등이 노력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기를 거듭하였다는 것이다. 겨우 내부 정리를 마치고 나서야 오랜만에 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고 한다. 총회에서는 정관 일부를 개정하고 임원을 개선하였다.<sup>54)</sup> 이후 1940년에는 정상적으로 제9기 총회가 개최되었다.<sup>55)</sup> 그리고 이해에도 강화 인삼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그 내용은 이전 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강화의 인삼이라면 원산지인 개성 산출의 인삼을 능가할 만큼 품질이 양호하다 함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sup>51)</sup> 「유망한 강화 인삼, 생산액 10만 원」, 『동아일보』 1937. 11. 3. 이 무렵에는 강화 인삼 채취 면적은 13,000칸이며, 생산고는 10만 원을 돌파하였다.

<sup>52)</sup> 「강화 인삼 산지 개성 관내로 편입」, 『자유신문』 1946. 10. 16.

<sup>53)</sup> 「강화 인삼도 유망, 금년엔 이만여 칸 채취」, 『조선일보』 1937. 10. 12.

<sup>54)</sup> 「강화인삼조합 창립총회 종료」, 『조선일보』 1939. 8. 6.

<sup>55)</sup> 「강화인삼조합 제9기 총회」, 『조선일보』 1940. 6. 29.

이번 가을에 강화인삼조합 구역에서만 1만 간을 채굴하기로 되었다. 매 간에 12원에 매매하고 있는데, 그 총액이 10여만 원의 생산을 낼 것으로 일반 경제계도 다대한 원할을 보일 것이라고 한다.<sup>56)</sup>

이처럼 강화에서도 삼포민들의 노력으로 인삼업이 성장하였다.

### 3. 충청북도 제천군

충북 제천군 일대의 삼포민들도 덕산삼업조합을 조직해서 인삼업 발전을 도모하였다. 덕산삼업조합은 전매국의 보조 기관의 성격을 띠고 설립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설립 이후에는 인삼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군 당국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였다.

1933년 12월에 구역 외 인삼도 전매국 소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결정되었고, 1934년 2월에 홍삼전매령에 따라 전매국에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구역 외 삼포도 지역별 전매국 출장소에 소속되었다.<sup>57)</sup> 충북 제천군의 덕산 지역은 경성 전매지국 충주출장소에 속하게 되었다. 충주출장소가 담당 군 당국으로부터 인수한 경작 인원은 108명, 경작 면적은 12,170평이었다. 그런데 전매국에서 인수 후에 실지 검사를 한 결과 경작 인원은 101인, 경작 면적은 17,972평으로 나타났다.<sup>58)</sup> 군에서 담당하던 때와 비교하여 경작 인원은 8명이 줄었지만, 경작 면적은 5,802평이 증가하였다. 5천8백 평 자체는 큰 면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는 실제 면적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큰 비중이었다. 당시까지 인삼 업무를 맡고 있던 행정 관청에서 관내의 인삼업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매국 이관 이후 경작 상의 여러 절차와 홍삼전매령에 따른 단속을 위한 보조 기관으로 1934년 9월 3일에

덕산삼업조합을 제천군 덕산면 도전리에 설립하였다.<sup>59)</sup> 덕산삼업조합은 전매국의 보조 기관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조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른 기사에서도 조합 설립에 전매국의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34년 2월부터 홍삼전매령에 따라 전매국에서 경리하는 바가 되어, 삼업조합을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어, 당시 조합 서기였던 김진보, 이사 김성묵 등 여러 사람은 삼업계의 중심인물이 되므로 1933년부터 조합 설치에 부단한 노력을 다하여 본 조합의 창립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sup>60)</sup> 여기에서는 조합 설립이 전매국의 지시라고 적고 있다.

구역 외 인삼을 관리하게 된 전매국에서는 인삼경작과 관련하여 철저한 단속을 시행하였다. 실제로 덕산 지역을 보더라도 전매국에서는 인삼 채굴을 엄격하게 관리했다. 덕산의 경우 전매국에서는 인삼 채굴과 관련하여, 9월 초에 삼포민들로부터 인삼 채굴 신고를 받았다. 그리고 이 신고에 의해서 실지 검사원을 입회케 하고 채굴하도록 하였다. 채굴 면적은 2,758평이었고, 거기에서 채굴한 수량은 2,345근이었다. 채굴 성적을 보면 덕산 지역에서는 삼포 1칸에서 수삼 0.85근 정도를 채굴하였다. 삼포 1칸에서 채굴한 수삼이 1근이 채 안 되었다[그림 3].<sup>61)</sup>

제천군 인삼업의 추이를 보면 1921년에는 1천 평이 조금 넘는 규모였다. 이후 1924년까지는 1천 평이 채 안 되었다. 그리고 1920년대 중반 무렵에는 2만 평 대를 유지하였다. 193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대체로 면적이 3천 평 이상이었고, 1932년에는 거의 5천 평에 육박하였다. 그런데 당시 신문기사에 의하면 1934년 무렵 면적은 1만

<sup>56)</sup> 「강화도도 인삼 도시」, 『매일신보』 1940. 9. 15.

<sup>57)</sup> 「山蔘の稱ある 徳山蔘業組合」, 『中鮮日報』 1935. 11. 23.

<sup>58)</sup> 「전매 충주출장소 인삼 사무 확장」, 『매일신보』 1935. 11. 14.

<sup>59)</sup> 「전매 충주출장소 인삼 사무 확장」, 『매일신보』 1935. 11. 14. 조합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조합장 권석인, 이사 김성묵, 서기 김진보, 평의원 이범준, 김진보, 이기호, 이승하, 정준원, 김기석. (『山蔘の稱ある 徳山蔘業組合』, 『中鮮日報』 1935. 11. 23.)

<sup>60)</sup> 「山蔘の稱ある 徳山蔘業組合」, 『中鮮日報』 1935. 11. 23. 조합 설립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묘사된 김진보는 인삼경작이 본업이었고, 도전리 구장, 면 협의회원, 학무위원, 소방 주두 등의 공직에 있었던 인물로, 덕산 지역의 유지였음을 알 수 있다.

<sup>61)</sup> 「전매 충주출장소 인삼 사무 확장」, 『매일신보』 1935. 11. 14.

표 6. 덕산 인삼의 면적 추이(단위: 평)

연도	1921	1922	1923	1924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4	1936
면적	1,222	841	868	771	2,775	2,538	2,578	3,533	945	3,948	4,953	17,972	24,029
인원												83	82

8천여 평이었다. 군 당국의 조사로는 1만2천여 평이었지만, 전매국에서 다시 조사한 결과 1만8천여 평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36년에는 2만4천여 평으로 증가하였다. 경작 인원은 80여 명을 상회하였다. 1인당 평균 경작 면적은 217평, 293평이었다. 덕산 인삼업은 1930년대 들어 이전보다 크게 성장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중부 지방을 기반으로 한 일본어 신문은 좀 더 자세하게 덕산삼엽조합을 소개하였다. 그 기사에 의하면 덕산삼엽조합의 경작 관할지는 덕산면, 수산면, 백운면, 청풍면 일부, 음성군 일부 등이었다. 경작 인원은 83명이었고 연 생산은 6천 근을 돌파하였다. 그리고 매상 가격은 2만 원에 달하였다. 1935년에는 백삼 제조를 10월 중순에 마쳤다. 생산한 인삼 판매 상황을 보면 각지로부터 주문이 예년의 2배이고, 근방 수용가에 공급하고 있어서 지방 주문에는 부족을 느끼고 있었다. 명실하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수요자의 호평이 있고, 산삼의 호평까지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생산량이 작은 것은 유감이었다.<sup>62)</sup>

덕산삼엽조합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작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1938년 무렵 충북 명물의 하나인 제천군 덕산 인삼은 연산액 5,635근에 달하였다. 덕산 인삼은 충북을 중심으로 조선 각지에 판매되고 있었다. 덕산은 인삼 재배에 가장 적당하여 그 품질이 상당히 우수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작자는 거의 빈약한 자이므로 인삼업에 대한 자금이 없어 경영상 곤궁에 빠지고 있었다. 제천군 당국은 물론 삼엽조합에서도 이를 상당히 우려하였다. 군 당국은 경작자금만 융통하여 장려하면 반드시 진전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5주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런 다음 도 당국에 대하여 보

조금을 신청하였다. 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하여 신문 보도 날짜까지 구체적 안은 서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계획은 도의 보조를 5개년 간 받아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하며 작부 면적의 확장을 기도하여 생산 증산을 도모하는 것이었다.<sup>63)</sup>

이 기사는 1930년대 구역 외 인삼업 성장의 배경을 잘 보여준다. 한반도 곳곳은 인삼을 재배하기에 적당한 곳이었다. 그런데 인삼경작은 5년 내외의 기간을 필요로 하고 그 기간에 지속해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는 인삼경작을 위해서는 큰 자금이 필요함을 뜻한다. 인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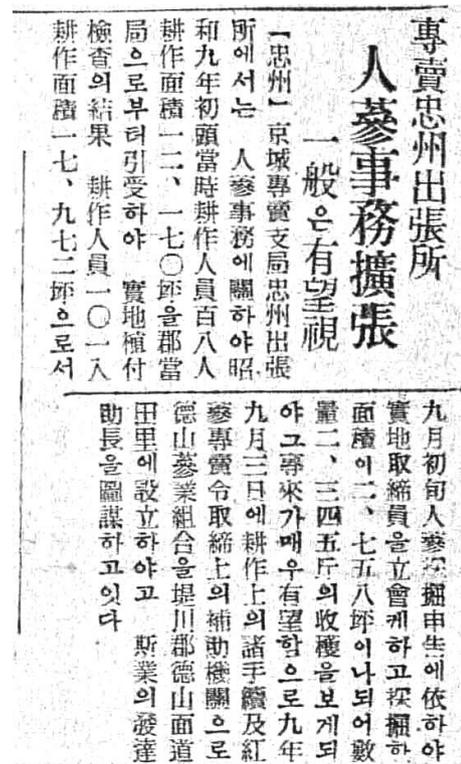


그림 3. 「매일신보」 1935. 11. 14.

<sup>62)</sup> 「山蔘の稱ある 徳山蔘業組合」, 『中鮮日報』 1935. 11. 23.

<sup>63)</sup> 「덕산인삼 생산증를 기도코 도 당국에 보조 신청」, 『조선일보』 1938. 11. 15

경작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이 경작자금 조달이라고 할 수 있다. 제천군의 덕산 인삼 역시 이 경작자금에 발목을 잡혀서 인삼 재배 적지가 많음에도 면적 증가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자 군 당국과 삼업조합은 서로 협력해서 자금 확보에 나섰다. 그것은 충청북도도 당국에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5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군 당국과 삼포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보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당시 삼포민과 행정 관청이 자기 지역 인삼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당시 인삼업은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 V. 맺음말

일제강점기 인삼경작 구역은 특별경작구역과 그 이외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전자는 전매국이 제조하는 홍삼 원료인 수삼을 경작하는 지역이었다. 반면 후자는 전매국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해당 지방 관청의 관리를 받았다. 지금까지 특별경작구역 인삼업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진행된 반면 구역 외 인삼업 연구는 매우 부진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930년대를 중심으로 구역 외 인삼업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인삼업의 변동은 그 면적의 증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구역 외 삼포 면적에 대한 일관된 통계가 없다. 그래서 현재 확보 가능한 자료들을 비교 검토하여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1930년대 연도별·도별 삼포 면적을 도출하였다. 신뢰도가 높은 통계는 1938년까지였다. 그 이후 시기의 자료들은 신뢰도를 검증할 수 없어서 분석을 유보하였다. 도출한 통계를 통해서 1930년대 구역 외 인삼업의 특징을 보면 무엇보다 삼포 면적의 급격한 증가를 꼽을 수 있다. 1929년 64만4천여 평, 1930년과 1931년 77만여 평이었던 삼포 면적은 1938년에 134만여 평으로 급증하였다. 이처럼 1930년대 구역 외 삼포 면적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이 시기 구역 외 인삼업의 놀랄만한 성장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삼포 면적이 급증한 결과 특별경작구역 인삼업과 그 차이가 크게 줄어들어서 그 규모가 비슷해졌다. 1930년대 초반까지 특별경작구역 삼포 면적과 구역 외 삼포 면적 비중은 대체로 70 대 30 수준이었다. 특별경작구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고, 구역 외 인삼업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1930년대 후반이 되면 그 비중이 대략 53대 47로 비슷해졌다. 구역 외 삼포 면적이 여전히 더 넓었지만, 그 격차는 크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도 구역 외 인삼업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구역의 비중이 비등하게 된 이유는 특별경작구역의 경우 신설 삼포 면적을 줄였지만 구역 외에서는 꾸준히 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일제의 중국 침략 확대로 중국 내에서 일본 상품 배척 운동이 있었다. 홍삼도 일본 상품으로 간주되어 불매 대상이 되면서 수출이 격감하였다. 이에 수출량 조절을 위해서 특별경작 구역의 경우 몇 년간 삼포 면적을 줄여나갔다. 반면 구역 외의 경우 비슷하게 감작주의로 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감작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삼포 면적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렇게 1930년대 들어서 두 구역의 인삼업은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 결과 구역 외 삼포 면적이 구역 내의 삼포 면적과 비슷해졌던 것이다.

구역 외 인삼업은 크게 성장하였지만, 인삼경작이 이루어진 도별 상황은 서로 달랐다. 1930년대 중반 이후 인삼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끈 도는 전북이었다. 금산 인삼이 재배된 전북은 금산 이외에도 무주군, 진안군에서도 인삼경작이 매우 활발하였다. 1930년대 초반에는 다른 도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193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다른 도들을 압도하였다. 그래서 구역 외 삼포 면적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었다. 구역 외 지역에서 전북이 압도적인 존재로 부상한 것이다.

전북에 이어서 인삼경작이 활발한 도는 경북이었다. 경북은 풍기 인삼이 재배되던 곳이다. 경북은 1930년대 초반에는 한때 면적이 가장 넓은 도였다. 그렇지만 1930년대 중후반으로 갈수록 면적 증가 규모가 크지 않으면서 전북에 밀렸다. 그렇지만 대개 전북에 이어서 2위의 면적을 지녔다. 전북, 경북에 이어 인삼경작이 활발했던

도는 강원도였다. 강원도는 면적이 급증하지는 않았지만 1930년대 내내 꾸준히 면적이 증가하여서 1930년대 내내 10만 평 이상,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15만 평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였다. 이외에도 경기도와 경남, 충북 등지에서도 비교적 인삼경작이 활발하였다. 반면 전남, 충남 등은 인삼경작이 이루어졌지만 활기를 띠지는 못했다.

1930년대 구역 외 인삼업의 성장을 이끈 것은 삼포민들의 노력과 당국의 지원 등이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경북의 예천군, 경기도의 강화군, 충북의 제천군의 사례를 보았다. 세 지역 모두 인삼업이 일정하게 발전하자 삼포민들은 삼업조합(강화도는 인삼조합)을 조직하였다. 조합은 인삼경작과 판매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활동하였다. 뿐만 아니라 강화군의 경우 특별경작 구역 편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제천군의 덕산삼업조합은 경작자금 조달이 관건이라고 보고 도 당국에 보조금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삼포민들의 활동에 대해 행정 당국도 지원하였다. 이처럼 삼포민의 적극적인 활동과 행정 당국의 지원이 이 시기 인삼업의 성장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구역 외 지역에서 인삼업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구역 내 인삼업을 압박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매우 많은 지역에서 인삼이 경작되면서 인삼 재배기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있어서, 해방 이후로 인삼업은 현재와 같은 발전을 성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이해 상충

저자는 이해 상충이 없음을 선언함

## 사사

이 연구는 (사)고려인삼학회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참고문헌

### 단행본

한국인삼사편찬위원회, 『한국인삼사 상·하』(한국인삼경작조합연합회, 1980).

한국인삼사편찬위원회, 『한국인삼사 1·2』(2002).

송기靄, 『人蔘史』 제6권(조선총독부 전매국, 1939).

### 논문

양정필, 「한말-일제하 금산 인삼 연구」, 『한국사학보』 51(2013).

양정필, 「대한제국 시기 인삼업의 변화와 특징」, 『學林』 48(2021).

陸芝修, 「朝鮮人蔘の經濟地理的考察(未完)」, 『(조선총독부)조사월보』 제12권 제11호(1941).

### 기타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중선일보』

『자유신문』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33-1943년 각 연도판

Received: October 31, 2022

Revised: December 24, 2022

Accepted: December 26, 2022